

# 취준 6개월 만에 취뽀한 썰 푼다

오늘 | @리뷰 by 널부터출근맨 | 조회수 2,397



수당 받으면서 취뽀한 거 알면 다들 놀라더라ㅇㅇ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달ㅋㅋ

인생에서 가장 빨랐던 때를 꼽자면 4학년 막학기인듯?  
진짜 눈 감았다 뜨니 벌써 졸업했더라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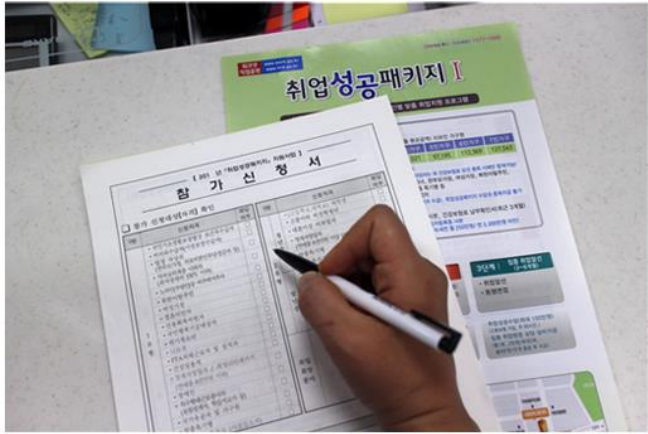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채용사이트 들락날락 했지  
근데... 막상 쓰고 싶은 기업이 없었음...  
뭐랄까 내 길이 아닌 기분?? ㅡT

그렇게 한 달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꿀꿀한 기분에 먼저 취업한 친구한테 SOS침

개는 이미 취뽀 했으니까 이것 저것 고민상담 했는데  
개가 나보고 고용센터에 가보라는 거야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본데라 뽀뽀해서 됐다고 했는데;;  
.....??

밀쳐야 본전이니 다음 날 바로 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용센터 가서 취준생이라고 하니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라더라?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거 맞다고 함 ㅇㅇ  
그래서 간 김에 바로 신청 ㄱㄱ

요게 취업상담 받고, 직업훈련 하고,  
그 답에 취업알선 해주는 3단계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선 1단계에서 상담 3번을 먼저 받았음

첫 날, 직업심리검사랑 선호도검사 한 답에  
둘 째날, 상담쌤이랑 같이 앞으로의 구직 계획(IPA)짜고  
셋 째날, 직업훈련 어떤 거 받을 건지 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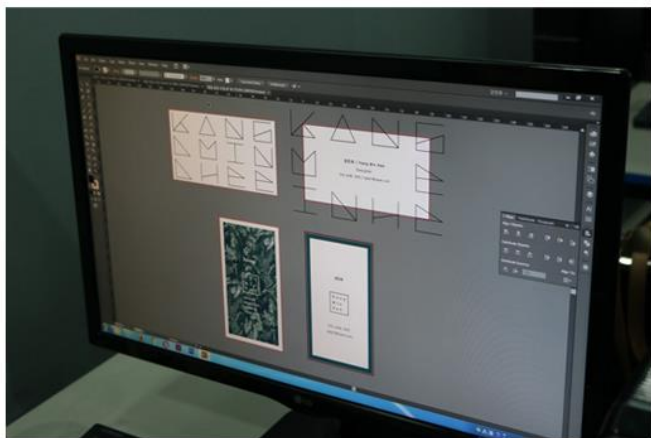
근데 확실히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는듯ㅇㅇ  
혼자 할 때는 거의 ㅇㅂㅇ?! 였는데 ●\_●!! 으로 변한 느낌ㅋㅋ

그런데!!!!!!

난 분명 상담쌤이랑 상담 밖에 한 게 없는데 보름 뒤에  
통장으로 15만 원이 들어온 거야  
알고보니 취업패 1단계에서 주는 참여수당이었음!!  
(몰랐는데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함)

핵이득!!!!!!!!!!!!!! ㅋㅋㅋㅋㅋㅋ

요걸로 교통비랑 식비랑 요긴하게 씬ㅋㅋ



그 다음부터는 2단계 직업훈련 바로 들어감~~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난 평범한 문과 피플임  
근데 뒤늦게 웹디자이너를 꿈꾼 거거든...  
그래서 1단계에서 디자인 분야로 진로 정하고 2단계에서는  
주로 웹디자인 위주로 수업 들었음 〇〇

명함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것도 하나씩 알려주니깐  
생각보다 금방 배우겠더라고

수업 종류가 엄청 많은데 나는 3개월 코스로 들었음  
여기서 중요한 건 취성패 2단계에서도 수당이 나옴ㅋㅋ

1단계에서 참여수당이 있었다면  
2단계에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있음 ㅋㅋㅋ

출석률 8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월 28만 4천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여기에 훈련 받는 동안 교통비랑 식비용으로 훈련장려금도  
매월 11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음!!!!

나는 따로 알바도 안 하던 터라 이게 정말 힘이 됐음  
대신 그 시간에 수업 진짜 열심히 들음 진짜로 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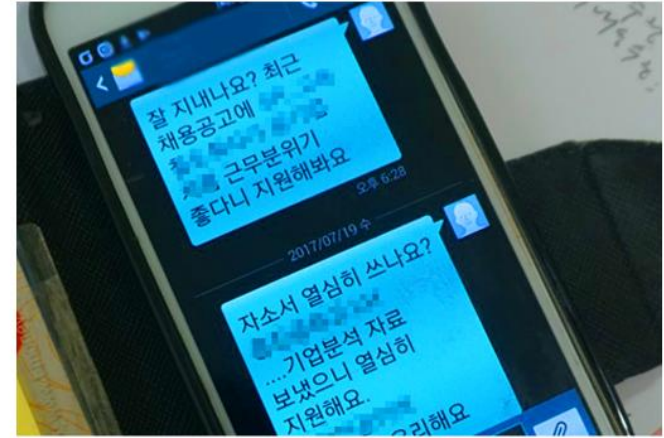
그렇게 웹디자인 훈련 마치고 나니 이제 3단계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따로 수입이 없으니까  
취업알선 단계에서 머뭇거리지더라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진짜 있었음ㅋㅋㅋ  
올해부터 취성패 3단계에도 수당 줌ㅋㅋㅋㅋ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고 취성패 3단계 딱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요번에 새로 생겼다고 함!!

무려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고용센터 가서 협약체결하고 구직계획서 써서 낸 다음에  
그 달달에 보고서랑 수당신청서 내니깐  
통장에 3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ㅠㅠㅠㅠㅠㅠ

면접정장이랑 토익학원비 땀에 우울했는데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다행히 해결할 수 있었음



3단계 취업알선 기간엔 상담쌤이 자소서 첨삭 도와주시고  
채용공고 나면 매번 카톡이나 멜로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놓치지 않고 대부분 지원할 수 있었음ㅇㅇ

그러던 중에 집이랑 조금 가까운 데다가 복지랑 연봉도  
꽤 괜찮은 회사가 있어서 운 좋게 면접을 보게 됨!!

아무래도 첫 면접이라 좀 떨리더라ㄷㄷ  
그래서 고용센터 가서 면접 단기특강 들으면서 준비했고

면접 당일에는 웨디 훈련 받으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니 반응 꽤 괜찮았음 ㅋㅋㅋ  
(솔직히 이 때부터 약간 합격 조짐 보였음 데헛)

그리하여 결국 최종 러브콜 받았고  
지금 첫 출근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최종합격 문자 받고 기뻐서 상담쌤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른 건 비밀 ㅋㅋㅋㅋㅋ 놀라셨다면 ㅈㅅ

암튼 이 글을 읽는 취준생들에게 해주고픈 얘기는 딱 하나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든,  
취준 하면서 생활비 벌기가 힘들든,  
우선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서 취성패 먼저 신청해라

우리 부모님이 내는 세금인데  
아들딸인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음?

나처럼 전공 완전 바꾼 사람도 6개월 만에 취뽀 했는데  
너네라고 못할 건 하나도 없다고 봄ㅇㅇ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고용센터 가서 취성패 신청한 담에 수당 받으면서 취뽀 한다면  
너도 금방 취뽀할 거라 믿음!!!!